경북,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인명피해 제로" 사수

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제설장비 4719대·인력 1만명 투입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집중 점검
고립 우려 112개 마을 안전관리
한파쉼터 5210곳·취약계층 보호



경북도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사진은 제설 차량 작업 모습.

경북도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 산불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거주민과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보호와 초기 제설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지난 13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도내 22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재난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11·12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월 찬 공기 유입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설차량 1199대와 소형 제설장비 3520대, 제설인력 1만1473명, 제설제 1만6281t을 확보했다. 강설 초기 신속 대응을 위해 주요 취약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재해우려지역 850곳과 상습 결빙 예상구간 327곳을 중점 점검한다. 폭설로 인한 산간 고립에 대비해 13개 시군 112개 마을, 857가구 1430명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발전기·위성전화·구호물품 등도 미리 배치한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도는 대형 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1880동(거주민 3049명)의 보온시설과 수도 동파방지 열선을 점검하고, 제설도구 비치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도내 한파쉼터 5210곳의 난방·운영 상태를 살피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만7857명을 상대로 방문·안부 전화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한파대책비 10억6000만원을 투입해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쉼터 난방기기·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추진하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경북도 담당자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변화와 국지적 폭설, 갑작스러운 한파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거주민과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진도 서망항, 서남해안 수산경제 거점 도약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선정
917억 투입해 가공·유통시설 확충

진도군 서망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망항은 기존 수산물 생산과 위판 중심의 어항에서 저장, 가공, 유통, 관광 기능을 갖춘 서남해안의 수산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서망항은 전국적인 꽃게 주산지이자 서남해안의 주요 수산물 위판 거점으로, 2025년 위판액 327억 원을 기록했으나 저장, 가공, 유통시설과 어항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진도군은 어항시설과 수산물 유통 체계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했으며, 7월에 '예비 대상항' 선정 이후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서망항 일원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05억 원, 지방비 252억 원, 민간투자 60억 원, 총 917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남측 소형선 부두 확충과 하역 자동화 ▲주차타워와 어항 경관, 안전시설 조성 ▲저온유통 거점(콜드체인 허브) 구축 ▲위판장 현대화와 저온 저장시설 확충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등이다. 이번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통해 635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확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282억 원)과 연계해 서망항 일대를 서남해안의 종합 수산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규모의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서망항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25가구와 주민교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탄력

예타 통과로 1007억 규모 사업 추진

포항시가 추진하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 705억 원, 도비 91억 원, 시비 211억 원으로 구성된다. 호미곶 앞바다에 게바다말·잘피숲을 조성하는 해중생태 복원과 바다거북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호미반도 보전센터와 바다연어 물길정원, 심해체험 바다학교, 해안생태단구원 등 교육·체험시설을 구축한다.

호미반도는 106.7㎞의 해안선과 71.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기존 해안관광자원과 어촌·해양문화 자원을 연계해 해양생태계 보전·복원과 교육·연구,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 지정 절차를 앞둔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과 연계해 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보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사업 과정에는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 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응해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사항을 분석하고 국가적 보전가치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라이엇게임즈

수원시, 2027 롤드컵 본선 개최지 확정

내년 11월 2~7일 수원컨벤션센터

수원특례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인 '202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본선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지난 14일 최종 개최 도시로 확정됐으며, 2027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8강과 4강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 롤드컵에는 전 세계 6개 지역 리그에서 19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수원에서 열리는 본선 경기에는 하루 8000명씩 총 4만 8000명의 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는 지난 4월 1차 유치 의향서 심사를 통과한 뒤 7월 유치 제안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쳤다. 이어 8월 3차 최종 심사에서 우선협상 도시로 선정됐으며, 11월 14일 본선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세계적인 e스포츠 축제인 롤드컵 녹아웃 스테이지를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수원의 문화·관광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세계 각국의 e스포츠 팬들이 수원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진안군, 김치보쌈축제 성황리 마무리

궂은 날씨에도 전국 방문객 발길

진안고원의 우수한 배추와 김장문화를 알리는 '제8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호응속에 막을 내렸다.

진안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안군 로컬푸드직매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김장체험이었다. 큰 일교차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라 속이 꽉 차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진안고원 배추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행사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김장의 재미를 나누고 진안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했다.

먹거리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진안 흑돼지 수육과 김치를 비롯해 천원 막걸리, 로컬바비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가 인기를 끌었다. 김장 골든벨과 'SHOW ME THE 김장', 홍삼 칵테일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도 축제의 흥을 돋웠다. 어린이 놀이공간과 김치마을 팝업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진안(전북)=허남근 기자 nk1378@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APEC 미디어월 상설 운영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당시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던 미디어월을 상설화하고, 보문수상공연장 앞에서 '포스트 APEC 미디어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상회의 기간 임시로 설치했던 미디어월을 상설 문화콘텐츠로 조성해 APEC 개최 성과를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대표 콘텐츠는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을 소재로 한 영상이다. 페르시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신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유리병을 통해 고대 신라의 국제 교류 역사를 조명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산청군
첫 영남 피클볼대회 성황리 개최

'제1회 산청군협회장배 영남 피클볼대회'가 15일 산청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영남지역 10개군 선수단 230여 명이 참가해 경기를 치렀다. 선수들은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겨루고 지역 동호인들과 교류했다. 현장에는 유명현 산청군수,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부의장, 오상석 산청군 피클볼협회장, 김규성 경남 피클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명현 군수는 피클볼 동호인 활동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하동군
쌀 수출 1000톤 넘어서며 호조

경남 하동군은 올해 쌀 수출량이 1000톤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동쌀은 2012년 호주에 처음 수출된 이후 누적 수출량이 3000톤을 넘어섰다. 올해 수출량은 지난해 600톤보다 400톤 늘었으며, 군은 연말까지 1200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와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 9개국이다. 국가별 수출량은 캐나다 700톤, 미국 147톤, 뉴질랜드 51톤, 영국 44톤으로 북미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하동쌀은 북미 지역에서 영업하는 스시 체인 벤토스시(BENTO SUSHI)에도 공급되고 있다. /하동(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인천시
수능일 특별수송 대책 가동

인천시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험장 이동을 돕는 특별수송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2만 9,702명으로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등교시간대 집중배차를 실시하고, 시험장 경유 노선에는 안내표지 부착과 안내방송으로 시험장 위치를 알린다. 도시철도는 주요 역사 21곳에 안내인력 92명을 배치하고, 비상대기열차 3대와 운행 지원반 14명을 운영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